

불붙은 방망이 3연패 탈출 윤석민 28이닝 무실점 행진



KIA, 13-1 한화 대파

에이스 윤석민이 28이닝 비자책 행진으로 연패의 틈을 구했다.

군산 나들이에 나선 KIA 타이거즈가 22일 군산 월명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13-1의 대승을 거두며 3연패 사슬을 끊었다.

선발 임무를 맡은 윤석민은 6이닝 1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로 시즌 5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4일 넥센전을 시작으로 두산·LG를 상대로 무실점의 완벽투를 과시했던 윤석민은 최고구속 150km의 직구와 142km의 고속 슬라이더 그리고 낚아 큰 커브로 한화 타선을 봉쇄하며 비자책 기록을 28이닝까지 연장했다.

한화와의 앞선 두 경기에서 답답한 공격으로 한화에 2승을 내줬던 KIA 타선도 1개

의 홈런과 6개의 2루타를 포함 장단 15안타를 터트리는 화려한 타격으로 '수퍼 선데이'를 만들었다. 이날 승리로 KIA의 올 시즌 일요일 전적은 6승2패가 됐다.

KIA가 3회 무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클린업 트리오 김원섭·이범호·최희섭의 방망이가 헛돌면서 득점 없이 이닝이 종료됐다.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던 5회말 이용규의 2루타가 도화선이 됐다.

김선빈의 연속 2루타로 선취점을 뽑은 KIA가 김원섭의 중전안타로 공격을 이어갔다. 이범호·안치홍·신종길의 2루타까지 터져나오는 등 KIA는 7타자 연속 릴레이 안타로 5회 대거 7점을 뽑아냈다.

5개의 2루타로 한 회 최대 2루타 타이 기록을 세운 KIA는 6회말에도 사사구 4개와 신종길의 2루타 등을 묶어 5점을 한bane에 끌어담으며 시즌 최대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2이닝 연속 타자 일순 기록도 세웠다. 허리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빅초이' 최희섭은 19일 1군 합류 이후 4경기 만에 홈런 포를 날렸다.

7회 1사에서 타석에 선 최희섭은 한화 복귀 후 처음으로 친정팀을 맞이한 안영명을 상대로 우중간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팀 연패 탈출을 자축했다.

7회부터 마운드를 넘겨받은 2년차 좌완 삼동섭은 3이닝동안 2피안타 4탈삼진 1실점(비자책)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짓궂은 날씨 탓에 20·21일 각각 8530명과 6900명을 유치하는 데 만족했던 KIA는 22일 11000명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올 시즌 5번째 만원 관중을 채웠다. 18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평일 만원 사례를 기록했던 KIA의 시즌 5번째 만원이었다.

한편 고향 군산을 찾았던 김상현은 20일 경기가 끝난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패투

22일 전북 군산월명야구장에서 벌어진 2011프로야구 한화-기아경기에서 기아 선발 윤석민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주가 돌아온다

송원대와 3군 연습경기 8개월 만에 실전피칭



'피터팬' 한기주가 부활을 위한 비행을 시작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한기주가 지난 20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송원대와 3군 연습경기를 통해 8개월 만에 실전피칭에 나섰다.

선발로 나온 한기주는 4회까지 50개의 공을 던졌다.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 두개를 내주기는 했지만 6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실점 없이 마운드를 내려왔다.

한기주는 "큰 부담없이 공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직구, 체인지업, 슬라이더, 투심 등 다양한 공을 던져 봤다"며 "오랜만에 실전피칭이라 제구가 좋지 못했지만 시간을 두고 차분히 가다

들어야 할 것 같다. 투심이 잘 들어갔다. 피칭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 "3군에서 차분하게 준비를 한 뒤 2군에 올라가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한기주는 2009년 11월20일 미국 LA조브릴리닉센터에서 오른쪽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골절 제거 수술을 받으며 재활에 들어갔다.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8월 볼펜피칭에 이어 9월 2군에서 한차례 등판했다.

한기주는 6월 2군에서 실전 피칭을 하며 1군 진입을 노릴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 세광고에 8-1 콜드승

주말리그 1회전 통과

광주일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상반기 왕중왕전 1회전을 통과했다.

5전 전승으로 전라권 1위로 왕중왕전에

진출한 광주일고는 2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주 세광고와의 경기에서 8회 8-1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광주일고는 1회부터 안타없이 연속해서 사사구 4개를 얻어내 1-0을 만들었다. 3회와 7회를 제외하고 매 이닝 득점에 성공한 광주

일고는 정경운의 볼넷과 박정섭의 2루타로 만든 8회말 1사 2·3루에서 장진혁의 2타점 적시타로 점수를 7점차로 벌리며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서동욱은 승리투수가 됐다.

광주일고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휘문고와 16강 경기를 갖는다.

군산상고는 아탑고에 1-4로 뒤지던 9회말 3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갔지만 10회말 득점에 실패하며 4-5로 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육상 400m 제주대표팀 23년 만에 한국新

육상 남자 400m 제주대표팀이 23년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오세진 대표팀 수석코치가 이끄는 대표팀은 22일 중국 저장성 자싱에서 열린 2011 아시아그랑프리육상대회 400m 계주 결승에서 39초19를 찍고 우승했다.

지난 1월 결성된 제주대표팀은 4개월간

바통 터치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마해 23년 간 유지된 한국기록(39초43)을 갈아치웠다.

아울러 8월 열리는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준기록(39초20)을 통과함으로써 한국 단거리 육상의 신기원을 열었다.

지난달 태국국제육상대회와 이달 초 일본 가와사키 육상대회에서 한국기록에 불과 0.

3초 모자란 39초73을 찍었던 대표팀은 100m 개인 최고기록이 10초33으로 국내 랭킹 3위인 여호수아(24·인천시청)가 지난주 합류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대표팀은 이날 여호수아를 1번 주자로 내세우고 전덕형(27·경향대)-김국영(20·안양시청)-임희남(27·광주시청) 순으로 멤버를 짜다. 100m 랭킹 1위인 김국영(10초23)과 2위인 임희남(10초32)에 여호수아가 힘을 합치면서 탄력이 붙은 대표팀은 이날 중국과 대만, 태국 등 계주 강국을 따돌리고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오 코치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노력했던 바통 터치가 이날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